2018 vol.210 | 1 January

voiceye.com VOICEYE

손으로 보는 세상

- **시선집중**
  [성명서]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는
  음성 ·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는 반대한다.
- **테마기획**
  신년사
- **인 터 뷰**
  시각장애인들도 스스로 주문할 수 있는
  점자 메뉴판 아이디어 낸 인화여고
- **포 커 스**
  성우들의 실감나는 목소리로
  오디오북 '세븐 킹덤의 기사'를 만나보세요!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contents

02 | 목차

03 | 점자로 말해요
▶ 무술년

04 | 시선집중
▶ [성명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는 음성 ·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는 반대한다.

06 | 테마기획
▶ 신년사

08 | 인터뷰
▶ 시각장애인들도 스스로 주문할 수 있는 점자 메뉴판 아이디어 낸 인화여고

10 | 포커스
▶ 성우들의 실감나는 목소리로 오디오북 '세븐 킹덤의 기사'를 만나보세요!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영도다리 밑의 봉선화를 아시나요
조재훈(시각1급_서울특별시 종로구)

13 | 월드 리포트
▶ 시각장애인 토니 자일, 17년 간 홀로 125개국 여행!
▶ 네팔, 시각장애인 등산객 에베레스트 등반 제한

14 | 뉴스앨범
▶ '시각장애인 가족 장애이해교육'에 참여하세요!
▶ 2017년의 추위를 날려요, 스키캠프 실시!
▶ 2017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 2017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6 | 2017년도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후원금 4/4분기 정산 / 후원안내

voiceye.com

2018년, 황금개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황금개띠의 해는 무술년이라고도 하는데요.

무술년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

무술년

읽기형 ①④ ②⑤ ③⑥

점자일람표

자음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	된소리 ⠠⠠
받침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	ㅆ받침 ⠄⠄
모음	ㅏ ⠣	ㅑ ⠜	ㅓ ⠎	ㅕ ⠱	ㅗ ⠥	ㅛ ⠬	ㅜ ⠍	ㅠ ⠩	ㅡ ⠪	ㅣ ⠕					
	ㅐ ⠗	ㅒ ⠜⠗	ㅔ ⠝	ㅖ ⠌	ㅘ ⠧	ㅙ ⠧⠗	ㅚ ⠥⠗	ㅝ ⠍⠎	ㅞ ⠍⠗	ㅟ ⠍⠕	ㅢ ⠺				
약자	가 ⠫	나 ⠉	다 ⠊	마 ⠑	바 ⠘	사 ⠠	자 ⠨	카 ⠋	타 ⠓	파 ⠙	하 ⠚	억 ⠫	언 ⠉	얼 ⠎	연 ⠢
	열 ⠱	영 ⠬	옥 ⠥	온 ⠢	옹 ⠬	운 ⠍	울 ⠥	은 ⠪	을 ⠎	인 ⠕	것 ⠸⠎				
약어	그래서 ⠁⠎	그러나 ⠉⠒	그러면 ⠉⠢	그러므로 ⠉⠍	그런데 ⠉⠝	그리고 ⠉⠥	그리하여 ⠉⠚								
숫자	수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0 ⠚				
문장부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운뎃점 (·) ⠐⠂	말줄임표(…) ⠐⠐⠐	말줄임표(...) ⠲⠲⠲	소괄호( ) ⠐⠣ ⠐⠜	대괄호[ ] ⠈⠣ ⠈⠜									
영어	영어시작 ⠴	끝 ⠲	대문자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아포스트로피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ㅈ,ㅊ,ㅆ,ㅉ, 다음에 약자 영 ⠻ 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성명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는 음성 ·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는 반대한다.

시각장애인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 ·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통해 선거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1월 23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위원장 윤관석) 회의를 갖고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 ·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이는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합의로서 점자형 선거공보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내용 중 음성제공으로 점자를 갈음할 수 있는 대안을 명시함으로써 후보자들이 선거공보 제작 시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을 하지 않고 음성으로만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신성한 투표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지난 2016년 5월 「점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광부 고시에 이어 '점자'가 시각장애인의 법적인 공식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물이 제작자들의 편의에 따라 점자가 아닌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로 대치될 우려가 매우 크다.

특히 점자 사용을 장려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선거공보물 제작 편의에 편승하여 점자 사용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점자로 선거공보물이 제작될 경우에는 손으로 즉각 내용을 읽을 수 있으나,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로 제작될 경우에는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스마트폰앱을 통해서 읽어야 함에 따라 정보 습득의 기회를 크게 제약한다.

더욱이 음성으로만 정보가 제공 될 경우 정보전달의 정확성의 한계에 부딪혀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선거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는 신성한 권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훼방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잘못된 점자공보물의 제작은 물론 이번 합의까지 결국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제한하려는 국가의 의지라고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다음 선거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을 의무화하는 취지를 준수하고, 음성 출력 되는 전자적 표시는 부가적으로만 제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 및 국회 등에서는 공직선거법 65조를 신속히 개정하여 일반 책자형 선거공보를 만들 경우 점자형 선거 공보도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 배포할 것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신년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이병돈 입니다.

무술년 개의 해 2018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에 원하시는 모든 소원들이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2017년 지난 한 해는 국가적으로 '탄핵 정국' 과 그로 인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서도, 우리 시각 장애인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밝혀왔던 그러한 해로 여겨 집니다. 19대 대선 장애인 연대를 통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주장들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장애인 연금을 인상하고 건강보험급여 적용 시각장애인 보장구 품목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추가해 줄 것, 시각장애 특성을 살린 활동 보조 인정조사표 개선 및 65세 이상 신규 이용 확대, 흰지팡이 기준액 3만원으로 상향 조정 및 저시력 안경 등의 내구연한 단축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에 정부도 긍정적인 답을 준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초에는, 금융위원회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그동안 자필 서명문제로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에 대해 이를 2018년 상반기까지는 모두 해결토록 하였 습니다.

이 외에도 드디어 우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시각장애인 전용 직업능력개발원이 2021년에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개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떨리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2017년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입니다. 앞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고용시장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각장애인 전용 직업능력개발원 설립 및 장애인식개선 관련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은 그동안 제임기 중에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이루어낸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마사협회와의 공동노력을 통해 대기업과의 연계고용을 통한 안마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한 점은 향후 우리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부터 전국장애인기능 경기 대회에 안마종목을 추가하여 시범 경기로 시작하게 된 점은 안마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차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지난 12월 28일 다시 한 번 쟁취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유보직종 합헌 결정을 토대로 안마가 우리 시각장애인의 직업으로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들이 주로 쓰고 있는 휴대폰이 터치스크린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폰으로 바뀌고 있는 현 상황속 에서, 터치스크린에 취약한 시각장애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좀 더 쉽고 간편하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뜰폰'을 추진한 것은 그동안 답답하기만 했던 시각장애인의 체증을 시원하게 뚫어 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많은 일들을 추진하여 기본 토대를 마련해 왔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각장애인연합회가 반드시 성취해 나가야 할 과제 들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대기업과의 연계고용 활성화 를 통해 침체된 안마의 활로를 모색함은 물론, 경로당 안마일자리 확대 및 안마수가 인상과 바우처 안마의 예산 증액을 통하여 우리들의 자립 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21년 개원 예정인 "시각장애인 전용 직업능력개발원"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우리 스스로 내실 있게 마련하여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각장애인 인권 센터를 설립하는 일입니다. 복지의 패러다임이 '시혜'에서 '권리'로 바뀐 만큼 시각 장애인의 복지 또한 '인권'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인권센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인권 침해에 조직적으로 대처하여 권리를 구제함은 물론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각종 법과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난해에 이어 정보접근권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웹 사이트는 물론 모바일 앱 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점자정보단말기의 보험급여 적용 등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합회는 '시각장애인에 의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의' 당사자 단체입 니다. 올해는 연합회 17개시도 지부 및 200여 지회, 그리고 중앙회 단체장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4년을 이끌 지도자인 만큼, 개인의 명예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힘쓰는 지도자들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인권'이 곧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 01.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이 병 돈**

시각장애인들도 스스로 주문할 수 있는 점자 메뉴판 아이디어 낸 인화여고

음식점에서 메뉴를 스스로 주문하는 것, 시각장애인에게는 어려운 일인데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화여고 3학년 4명의 학생이 나섰습니다.

Q 안녕하세요, 이예진, 신현서, 채현아, 신승은 학생이 어떻게 모임을 구성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A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같은 반이었고, 3학년이 되면서 또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회 · 문화 과목에서 직접 주제를 선정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수행평가가 주어졌고, 평소 친하게 지냈던 저희 4명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Q 어떻게 점자 메뉴판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나요?

A 처음부터 점자 메뉴판으로 주제를 선정한건 아니었어요. 우연히 방과 후에 떡볶이를 먹다가 메뉴판을 보고 저희는 쉽게 보고 주문할 수 있는 메뉴판이지만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때 시각장애인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다면 메뉴판을 보고 직접 주문하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수행평가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신현서 학생이 했던 점자책 만들기 봉사 경험도 주제를 선정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Q 주제 선정 후,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A 주제 선정 후 현재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의 점자 메뉴판이 보급되어 있는지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점자 메뉴판을 도입한 카페베네와 피자헛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운영진의 변경 등 다양한 사측 사정으로 인해 현재는 제공하지 않고 있었고,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에 방문해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국민 신문고 정책제안, 설문조사, 서명운동과 신문사 투고 등을 진행하며 점자 메뉴판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Q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부평역 지하광장에서 설문조사와 서명운동을 진행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다 보니 저희의 목표만큼 설문조사와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큰 소리로 동참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이런 활동이 처음이다 보니 많이 수줍어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하다 보니 온 · 오프라인 서명운동에는 약 1,500분, 설문조사에는 약 500분의 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Q 롯데리아에서 가장 먼저 전국적으로 점자 메뉴판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롯데리아와 함께 진행할 수 있었나요?

A 사실 처음에는 기업에서 저희의 아이디어를 적용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인천 지역의 뜻있는 개인 카페나 음식점에서 점자 메뉴판을 제작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국민 신문고에 정책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국회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국회의 도움으로 롯데리아에서 전국적으로 점자 메뉴판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이번 수행평가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비장애인에게 당연한 것들이 시각장애인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점자 메뉴판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 했지만 사회에는 또 다른 다양한 문제점 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인만큼 앞으로 기업 등에서도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우들의 실감나는 목소리로

오디오북 '세븐 킹덤의 기사'를 만나보세요!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를 아시나요?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방송인 등 방송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보호 하고 신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데요. 실연자협회에 소속된 KBS, MBC, EBS 등 공중파 방송국 성우들이 오디오북 제작을 위해 뭉쳤습니다.

'소리나눔 봉사단'은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의 성우들이 소속되어 국내 시각장애인 대표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서울점자도서관에 목소리 재능기부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에는 '소리나눔 봉사단'에서 오디오북 '세븐 킹덤의 기사'를 제작하기 위해 목소리를 모았는데요. '세븐 킹덤의 기사'는 케이블 방송사에서 방송되고 있는 '왕좌의 게임'

의 원작인데요. 시각장애인의 선호도가 높은 판타지 소설을 선정해 라디오 드라마와 같이 여러 명의 성우가 동시 녹음을 진행해 실감나는 목소리 연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2017년 12월, '세븐 킹덤의 기사'가 완성되어 시각장애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배포되었습니다.

이번 오디오북 제작에 참여한 소리나눔 봉사단의 성우들은 모두 프리랜서로 현업에서 활동 중이기 때문에 동시녹음 일정을 맞추기 위해 개인 녹음 스케줄이 마무리 되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녹음을 진행 했는데요.

성우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제작된 '세븐 킹덤의 기사'가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영도다리 밑의 봉선화를 아시나요

조재훈(시각1급_서울특별시 종로구)

내가 실명한 지 몇 해 안 되는 1965년 경의 일이었다. 어떤 중년 남자가 길을 걷는 내 앞을 막아서면서 "봉사님"이라고 하였다. "봉사님이라니?" 나는 목청을 돋우며 화를 내고 있었다. 나를 놀리는 소리로 알아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를 정중하게 대해주며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봉사님 봉선화집을 아시나요?"하고 간절하게 물었다. 그 사람의 말씨와 음성이 너무 정중하였기에 나는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었다. 그래서 걸음을 잠시 멈추고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그 사연인 즉 자기는 부산에 피난을 하였을 때 가족과 헤어져 절망에 빠졌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점으로 유명했던 영도다리 밑의 봉선화집이라는 복술원을 찾아가 점을 쳐서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봉선화집은 점집이었던 것이다. 점의 효과가 얼마나 영험하였는지 시각장애인을 "봉사님"으로 부르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가족이 모두 서울에 와 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아들이 가출하여 여러 날이 지나도록 돌아오질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점을 쳐 달라고 내게 부탁하였다. 그렇지만 복술을 모르는 나는 "영도다리 밑을 다시 찾아가 줄을 서서라도 봉선화님을 다시 만나보시지요." 하는 말 밖에 해 줄 수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의 생업이 지금은 안마로 되어 있지만 70년대 전만 하여도 복술이 주업이었다. 서울의 중심이라 할 종로 비원 앞 주변에는 시각장애인들의 역술원 간판이 즐비하였다. 그리고 남대문에서 남산공원을 올라가는 길목이나 성북구의 동선동 주변에도 역술원이 많았다. 우리나라의 개화에 앞장섰던 다산 정약용도 수입이 많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세금을 물려야 된다고 목민심서에서 말하였다. 그 시대에도 대 실학자가 세금 탈루인으로 의심할만한 명 복술가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점을 잘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우주탐험을 하며 첨단과학을 자랑하는 서양에서도 고대의 점성술을 아직 버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심령학이니 미래학이니 하는 학문을 발전시키고 있다. 더 큰 점을 치려는 것이다. 우리가 점을 쳐서 운세를 말하는 것은 개인에 관한 일이라 하찮게 여겨진다. 그러나 그것이 가벼운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잡아 줄 안내자가 필요하게 되었으니까. 상담사들도 이러한 몫을 하는 수가 있다. 그렇지만 보다 신통스러운 상담원이 요구되고 있지 않은가? 한동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사교들이 유행하며 현대인의 심적 불안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는가? 물에 빠진 사람은 썩은 짚이라도 잡으려고 한다. 강신무 즉 신이 내린 무속인은 계시를 받아 점을 친다고 한다. 그러나 신은 아무에게나 내려 신통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 어쩔 것인가? 오히려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판국이라 그것이 더 우려스럽게 되어 있다.

김기창 박사의 시각장애 100년사에 따르면 그 분의 본명은 강여성씨라고 하였다. 평안남도 순안군의 부호의 딸로 1928년 생이라 일본 오사카 부립맹학교에 유학까지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아주 좀 갖추어 사는 집안의 촉망받는 규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 혼란기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복술을 잘 가르치는 김명호란 분을 알게 되었다. 강여성씨는 김명호란 스승으로부터 역학을 익혔다. 신이 내린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역학을 익힌대로 영도다리 밑에서 불과 20여세의 나이에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녀의 점괘가 척척 들어맞았다. 꽃 같은 나이에다 외모나 언변이 뛰어난 것도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그래서 봉선화집의 상호는 그의 이름으로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피난민들의 이산가족을 찾아주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부산에서는 6.25 때의 그 어려움을 기억하기 위해 영도다리 주변에 복원공사를 해 놓았다. 그때는 항구의 키가 높은 선박의 통행을 위하여 다리를 와이어로 쳐들게 하였었다. 그래서 지게꾼에게 귀한 물건을 지워 앞에 보내던 사람이 별안간 다리가 들리는 바람에 그 사이가 바다로 분리되는 이변이 생겼다. 배가 통과한 뒤 다리가 다시 연결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귀중품을 몽땅 잃은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교통량의 증가로 다리를 고정시켜야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영도다리까지 하루에 한 번씩 들리게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다리 밑의 시각장애인 복술원도 자그마하게 그 모형을 복원시켜 놓았다고 한다. 그 어려운 시절의 고생살이의 흔적이 관광지로 변신하여 옛날의 추억을 되살려내고 있는 것이다. 만일 봉선화와 같은 사람이 지금 다시 나타난다면 복술계에도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안마업의 침체로 실의에 빠진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잠시 그 어려울 때의 봉선화의 자취를 여기에서 회상해 보았다.

시각장애인 토니 자일, 17년 간 홀로 125개국 여행!

영국 서머셋에 사는 토니 자일(39)은 시각과 청각장애를 가진 장애인입니다. 토니는 10세 때 시력을 잃었으며 보청기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그는 22세였던 지난 2000년 3월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125개국을 여행했습니다.

토니는 사막에서 낙타를 타거나 번지점프를 하기도 하고 사격장에서 소총도 쏴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했는데요.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지난 2012년 말리의 수도 바마코를 방문했을 때 군사쿠데타에 휘말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의 여행기는 책으로도 출판이 되었으며, 2009년에는 그리스 여행 중 자신과 같은 시각장애인 여성을 만나 지금까지 사랑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팔, 시각장애인 등산객 에베레스트 등반 제한

2018년부터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에서 시각장애인의 등정 성공 소식을 듣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지난 12월 31일 네팔 일간 히말라얀타임스 등에 따르면 네팔 정부가 최근 산악규정을 개정해 시각장애인과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 등은 원칙적으로 에베레스트 등 히말라야 고봉 등반 허가를 받지 못하게 했는데요. 네팔 문화관광부는 안전한 등반을 독려하고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같이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산을 사랑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안전한 등반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길 바래봅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NEWS

'시각장애인 가족 장애이해교육'에 참여하세요!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박준석)에서는 중도시각장애인의 가족들이 시각장애로 발생하는 심리적, 외형적, 병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재활하는데 조력자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가족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은 2018년 1월 29일(월)부터 2월 9일(금)까지 14시부터 16시까지 2주간 1일 2시간씩 진행되며 시각장애의 이해와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 소개, 바른 안내보행법, 보행체험, 저시력체험, 시각장애인 여가활동체험 등이 실시됩니다.

접수는 2018년 1월 2일(화)부터 22일(월)까지 02)950-0154 평생교육팀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관심있는 가족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진행일시: 2018년 1월 29일(월)~2월 9일(금) 14:00~16:00
- 장　　소: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교육실
- 접　　수: 2018년 1월 2일(화)~22일(월) Tel. 02)950-0154 평생교육팀

2017년의 추위를 날려요, 스키캠프 실시!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난 2017년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하이원 리조트에서 '2017년 시각장애인 스키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스키캠프에는 시각장애인 14명, 가이드 14명이 1:1로 짝을 이루어 진행되었는데요. 나사렛대학교 학생들이 가이드로 참가해 주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스키를 배우고 타는 시각장애인과 가이드의 얼굴에는 미소로 가득했는데요. 잠시나마 스키에 대한 배움의 열정으로 추위를 녹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7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지난 12월 20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변재일 국회의원실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최로 '정보접근성 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성균관대학교 이성일 교수,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안동한 팀장, 국가인권위원회 현정덕 조사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태 과장, 보건복지부 곽은교 서기관, 성신여자대학교 노석준 교수, 주식회사 마크로젠 김현아 변호사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에 대한 법적 · 제도적 · 정책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는 실질적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7년 12월 2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대상으로 '2017년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송년회는 약 50여명의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요. 행사에서는 우수봉사자 및 후원자 표창, 봉사활동 내역 상영 및 수상자 소감, 경품추첨 및 단체 사진촬영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에도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 2017년도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후원금 4/4분기 정산내역

후 원 금

세 입		세 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계	86,813,075	계	86,813,075
지정후원금	4,350,000	CMS메카	99,000
비지정후원금	46,172,259	CMS사용료	99,000
잡수입	17,442	소식지 제작사업비	1,236,000
CMS이체수수료수입	214,280	소식지 발송료	253,260
이월금	36,059,094	소식지 봉투구입비	77,000
		결연후원금 지급	150,000
		2017 노원사랑나눔 연합바자회사업비	144,700
		엘지유플러스 후원 사랑의김장나눔사업비	7,431,640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후원 오디오북제작사업비	8,500,000
		자산관리공사 후원 점자도서제작사업비	10,000,000
		푸르덴셜생명, KB증권, 앙끄레이 후원 취업자송년의밤사업비	2,830,808
		자원봉사운영사업비	40,000
		자녀학습지원사업비	2,287,679
		여가문화지원사업비	881,320
		스포츠여가활동사업비	3,614,550
		가정문화체험사업비	2,375,570
		CMS이체수수료지출	214,280
		이월금	46,578,268

후 원 물 품

세 입		세 출
항목	후원물품내역	후원물품사용내역
이월 후원물품	LG유플러스 후원 – 070플레이어 130대	
	SK네트웍스 후원 – 온누리상품권카드 18장	
	아식스후원 – 잠바 27벌	
	은 액세서리 – (팔찌, 체인, 반지) 12개	
	서울교통공사 후원 – 온누리상품권1만원권 40장	
후원물품	서울교통공사 후원 – 쌀20kg 20포대	저소득 시각장애인 가정 20포대 전달
	더다다 후원 – 의류 1,510벌	2017 노원사랑나눔 연합바자회 1,510벌 사용
	서울교통공사 후원 – 쌀20kg 12포대	저소득 시각장애인 가정 2포대 전달
	서울교통공사 – 후원 라면 1,000개	저소득시각장애인 10개 전달
	장어집 후원 – 장어탕 90인분	효사랑큰잔치사업 90인분 사용
	한국오츠카 후원 로션셋트 15박스	취업자 송년의밤 15박스 전달

| 후원안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 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6-601-227253, 신한은행 100-030-501953
예 금 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